

## 《三言》·《二拍》의 善行觀 연구

- 道德主體의 自覺을 중심으로 -

金 素 貞\*

<目 次>

- |             |              |
|-------------|--------------|
| I. 서론       | IV. 善行觀의 한계성 |
| II. 非自覺적 善行 | V. 결론        |
| III. 自覺的 善行 |              |

### I. 서론

16세기에서 18세기 인류의 세계사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였다. 이 시기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전환기에 발생한 제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서유럽 국가들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근대사회로 진입했다. 그에 비해 중국은 明代 후기에 이미 근대성 맹아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장기간의 정체국면에 빠져들고 말았다. 중국의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장기간의 정체 원인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이래 학계의 주목을 끌어들였다. 이 문제에 관해 필자 역시 적지 않은 관심이 있으며, 본고는 바로 이러한 동기 아래 작성되었다.

중국이 근대사회로 순조롭게 진입하지 못한 원인과 관련하여 필자는 明末 시기 대중의 사상의식에 주목했다. 사상의식은 경제·정치구조 등과 더불어 역사문화의 발전 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明末 시기 대중의

\* 釜山大學校 講師

사상의식을 고찰해 보기 위해 본고는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통속문학의 하나인 백화단편소설집—그 중에서도 《三言》·《二拍》을 텍스트로 삼았다. 원래 《三言》·《二拍》은 ‘선행 권장’을 편찬목적으로 삼아 출판된 소설로<sup>1)</sup>, 향락적 인생태도를 지니고 배금주의 경향으로 치닫던 명대 도시대중들에게 선행을 권장함으로써 사회질서 회복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말 사회는 여전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행권장을 통해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려 했던 본래의 편찬취지는 왜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까? 이는 우선 《三言》·《二拍》이 내포하고 있는 선행의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三言》·《二拍》이 강조했던 선행관의 핵심내용은 바로 도덕주체의 자각여부이다. 선행은 반드시 도덕주체의 자각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을 역설하기 위해 《三言》·《二拍》은 의식적 자각 없이 맹목적으로 행한 선행이 초래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덕주체의 자각에 치중한 선행관은 예상치 못한 폐단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선행권장이라는 편찬취지는 明末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고는 도덕주체의 자각을 중심으로 《三言》·《二拍》의 선행관의 특징과 한계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중국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

1) 이것은 《三言》·《二拍》의 序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醒世恒言·序》에 보면 “明은 우매한 자를 이끌 수 있다는 데서 취한 것이고, 通은 세속인에게 적합하다는 데서 취한 것이고, 恒은 그것을 익혀도 싫증나지 않으니 오래도록 전할 수 있다. 세 권은 각기 이름이 다르나 그 뜻은 하나이다. ……《喻世明言》·《警世通言》·《醒世恒言》으로써 六經과 國史의 보조로 삼는다.” (“明者, 取其可以導愚也. 通者, 取其可以適俗也. 恒則習之而不厭, 傳之而可久. 三刻殊名, 其義一耳. ……以明言·通言·恒言爲六經國史之補.”)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二刻拍案驚奇·序》에도 “主人( 즉 凌濛初) 이 진실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얻게 하면 충신효자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그렇게 못될지라도 음탕함을 선전하게 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작자의 고심을 나타낸다.” (“夫主人之言固曰: ‘使世有能得吾說者, 以爲忠臣孝子無難, 而不能者, 不至爲宣淫而已矣.’ 此則作者之苦心.”)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났던 장기간의 정체 원인 규명에 있어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II. 非自覺적 善行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이른바 善이라 함은 秦漢 이래로 유가의 윤리도덕이 중심골간을 이룬다. 명대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의 도덕기준은 忠孝·友愛·信義 등 유가윤리도덕 기초 위에 마련되었다. 그로인해 백화단편소설 중 인과응보를 소재로 삼는 고사는 대개 유가윤리도덕을 선악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因果應報類 고사를 살펴보면, 선행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유가윤리도덕을 충실하게 실천한 사람이며, 악행을 저질러 화를 당하는 사람은 유가윤리도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다.

이처럼 선악기준에 있어 明代에는 과거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선행의 함의에는 다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단서는 강제성을 띤 윤리도덕규범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실천방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자각적이지 못한 선행은 《三言》·《二拍》중 여성의 정절을 소재로 한 고사인 《警世通言》第三十五卷 《況太守斷死孩兒》에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작자는 수절을 고집했던 과부 邵氏의 파멸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종래의 선행 실천방법이 지닌 결함 중 하나인 지나친 강제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녀의 파멸과정은 당시 사회가 節義나 義理名分을 여성에게 강요한 결과 나타난 폐단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邵氏는 원래 평생토록 수절하겠다고 맹세한 과부로 친정과 시댁의 재가 권유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수절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나의 亡夫께서 구천지하에 계시는데, 내가 만일 두 姓을 섬기고 지아비를 바꾼다면 칼 아래 죽거나 동아줄에 목을 매고 죽을 것이다.”<sup>2)</sup>

2) “我亡夫在九泉之下, 邵氏若事二姓, 更二夫, 不是刀下亡, 便是繩上死”

이처럼 邵氏는 평생토록 한 명의 남편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여 節婦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태도에 대해 작자는 아래와 같은 서술을 삽입함으로써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자고로 ‘세말의 초를 삼켜야 과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과부는 참아 내기 쉬운 것이 아니다. 邵氏를 위해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분명하게 재가하는 것이 낫다. 비록 상등 인간은 되지 못할지라도 중등은 될 것이며 훗날 추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사람됨에 있어 헛된 명분을 절대 도모하지 말라.”<sup>3)</sup>

이상의 ‘세말의 초를 삼켜야 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구절은 여성의 수절은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임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작자는 과부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봉건정조관념에 반드시 구속당할 필요는 없으니 邵氏가 헛된 명분을 쫓지 말고 일찌감치 재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이후 邵氏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십년이란 긴 세월 동안 노력했으나, 십년 후 어느 날 하인 得貴의 유혹으로 그만 쾌락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작자는 이 사건을 통해 봉건정조관념에 무조건 복종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녀의 수절행세는 내심에서 우려난 것이 아니라 정조관념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작자는 비자각적인 선행 실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실천방안은 도덕주체의 성찰을 통한 자발적 선행실천으로서, 이는 명대 중엽이후 사상계에 대두한 陽明心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陽明心學은 도덕실천방법에서 이전의 程朱理學과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그들은 “天理는 곧 내 마음의 良知이다.”<sup>4)</sup>라고 주장하면서 우주의 天理를 인

3) “自古云: ‘呷得三斗醋, 做得孤孀婦。孤孀不是好守的。替邵氏從長計較, 倒不如明明改個丈夫, 雖做不得上等人, 還不失爲中等。不到得後來出醜。正是 作事必須踏實地, 爲人切莫務虛名。’”

간의 마음 즉 良知로 귀속시켰다. 그들은 마음을 궁구하기만 하면 천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도덕의 중심은 인간의 언행을 제재하는 외재적 도덕규범으로부터 인간에게 내재하는 良知의 작용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良知의 작용을 중시하는 陽明心學의 영향으로 《三言》·《二拍》의 선행관의 함의에는 도덕주체의 자각을 강조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던 것이다.

도덕주체의 성찰을 통한 자발적 선행실천을 강조하는 고사로 《警世通言》第二卷 《莊子休鼓盆成大道》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고사 역시 과부의 삶을 제재로 하여 그녀의 재가과정과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작자는 과부 田氏가 재가하는 과정을 통해 善에 관한 지식 습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폐단—즉 知行 不一致를 지적하면서, 선행의 관건은 윤리도덕에 관한 지식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주체의 윤리적 자각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田氏의 知行 불일치는 먼저 수절 맹세를 저버리고 재가하려는 행동을 기점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과부 田氏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은 평생 한평의 남편만 섬기겠다고 맹세한다. 이러한 맹세는 田氏가 재가를 서두르는 젊은 과부를 질책한 후 자신의 절개를 드러내는 다음의 대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참은 책을 읽어 禮를 알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한 지아비만 따를 것이며 다른 뜻을 품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서방님께서 만일 믿지 않으신다면, 마라온테 서방님 앞에서 죽어 제 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sup>5)</sup>

남편 莊生이 살아있을 때 田氏는 자신은 節婦가 될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節婦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는 자신의 도덕적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한 도덕을 아무런 자각 없이 맹목적으로 받

4) “天理即吾心之良知”, (明)王陽明, 《傳習錄》中.

5) “妾讀書知禮, 從一而終, 誓無二志. 先生若不見信, 妾願死於先生之前, 以明心迹”

아들인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여성이 준수해야 할 節烈 조항을 학습하여 수절맹세를 했던 것이다. 내적 성찰을 통하지 않은 공허한 맹세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7일 만에 용모가 준수한 楚王孫을 보고 반하여 그에게 시집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처럼 田氏는 책을 통해 학습한 禮를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리도덕에 위배되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한다. 이를 통해 작자는 내적 자각이 수반되지 않은 윤리도덕의 수용이 가져온 병폐를 한층 심도 있게 조명한다. 田氏의 부도덕한 행동은 재혼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田氏는 楚王孫에게 반하여 적극적으로 구혼하지만 이때 楚王孫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이에 田氏는 그를 설득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하는데, 이때 그녀가 늘어놓는 논리는 주목할 만하다. 당초 楚王孫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성혼이 불가함을 밝힌다.

첫째는 “집안에 시신을 모셔두고 있기 때문이고”<sup>6)</sup>, 둘째는 “莊先生과 낭자는 恩情이 깊은 부부였으며, 게다가 그는 도덕을 갖춘 명현으로 내 재능과 학식이 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니 남자의 박대를 받을까 두렵기”<sup>7)</sup> 때문이고, 셋째는 “나의 행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빈손으로 온지라 예물과 잔치 비용이 전혀 없기”<sup>8)</sup> 때문이었다.

이상의 楚王孫의 거절 이유를 통해 그녀의 재가는 시의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부와의 情理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楚王孫의 세 가지 지적은 그녀의 구혼이 법도에 어긋남을 꼬집는 것이다. 田氏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도덕 성찰의 계기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田氏는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기

6) “堂中見擺着個凶器”

7) “莊先生與娘子是恩愛夫妻，況且他是個有道德的名賢，我的才學萬分不及，恐被娘子輕薄。”

8) “我家行李尚在後邊未到，空手來此，聘禮筵席之費，一無所措。”

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성찰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 세 가지 거절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당장 혼인할 것을 요청한다. 그녀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신은 뿌리 내린 것이 아니에요. 방 뒤쪽에 낡은 빈 방이 하나 있으니 몇 명의 건장한 일꾼들을 불러 그것을 옮기면 돼요.”<sup>9)</sup> 둘째, “내 망부가 무슨 도덕을 갖춘 名賢이요! …… 사망하기 며칠 전 그 사람 때문에 한바탕 화를 냈는데 또 무슨 사랑이 있었을 리 있겠소! 당신 주인어른(楚王孫-필자주)께서는 젊으네다 배움을 좋아하니 앞길을 이루 헤아릴 수 없소이다.”<sup>10)</sup> 셋째, “예물과 잔치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누가 예물 따위를 바랬소!”<sup>11)</sup>

이상의 반박 논리는 그녀의 무정한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田氏는 일언지하에 망부와의 사랑을 부정하고, 심지어 망부의 고매한 인격마저도 모함했다. 그 후 그녀는 봉건혼례규범을 무시하고 임시변통 책으로 남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낡은 빈방으로 옮겼다.

한편, 작자는 이들의 결혼 중매인의 역할을 담당하던 楚王孫의 노복의 입을 빌려 그녀를 던지시 질책한다. 노복은 楚王孫의 거절의사를 田氏에게 전달할 때, 그녀 앞에서 “우리 주인어른 王孫이 한 말이 일리가 있어요.”<sup>12)</sup>라고 꼬집어 말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노복조차도 그녀의 구혼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노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田氏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못했다. 그녀의 윤리도덕에 위배되는 비인간적인 행동은 결혼하는 날 극도에 달한다. 그녀는 楚王孫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망부의 시신에 칼을 대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동방화축을 밝히는 날, 楚王孫은 갑자기 게거품을 내며 점점 죽어갔다. 田氏는 죽은 지

9) “凶器不是生根的, 屋後還有一間破空房, 喚幾個庄客擡他出去就是.”

10) “我先夫那裏就是有道德的名賢! ……臨死前幾日還爲他淘了一場氣, 又什麼恩愛! 你家主人青年好學, 進不可量.”

11) “聘禮筵席之費, 奴家做主, 誰人要得聘禮!”

12) “我家王孫他說得有理”

얼마 안 되는 사람의 골수를 먹이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즉시 망부의 관을 부셔 골수를 꺼내 楚王孫을 먹이려 했다. 田氏가 節婦에서 무정한 여인으로 돌변하는 과정은 독자로 하여금 학습에 의존한 선행 실천방법의 한계를 목도하게 한다. 도덕적 자각의식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 부도덕한 행위까지 하게 되었고, 중국에는 목숨까지 잃는 田氏의 비극을 통해, 작자는 선행 실천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내심에서 비롯된 윤리적 성찰이다. 작자는 도덕주체의 자각적인 성찰을 통한 선행만이 지식 습득에 의존한 선행이 지닌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Ⅲ. 自覺적 善行

이리하여 이른바 '선행'의 함의에는 도덕주체의 자각을 통한 자발적 실천이라는 개념이 핵심적 의미로 대두하게 되었다. 즉 인간의 도덕행위는 강요나 지식습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주체의 자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三言》과 《二拍》의 작자는 도덕주체가 자각을 통해 의지를 순화시켜 모든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행을 행하는 인물을 매우 성공적으로 형상화시켰다. 그 대표적 인물로 《醒世恒言》第十八卷 《施潤澤灘闕遇友》의 施潤澤과 《二刻拍案驚奇》第二十四卷 《庵內看惡鬼善神 井中譚前因後果》의 元自實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윤리의 내재화에서 비롯된 선행은 《三言》과 《二拍》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속한다.

먼저, 우연히 줌게 된 돈을 주인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施潤澤의 선행을 살펴보기로 하자. 施潤澤은 蘇州에서 양잠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손수 짠 비단을 장터에 팔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銀 여섯 냥을 줌게 된다. 그는 의외의 재물을 발견하고 “오늘 운이 좋구나! 주운 은을 밑천에 보태면 딱 좋겠구나.”<sup>13)</sup>라며 매우 기뻐한다. 수공

13) “今日好造化! 拾得這些銀子, 正好將去湊做本錢.”

업자인 施潤澤은 그것을 밑천으로 삼아 자신의 생업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곧이어 그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보기 시작한다.

“이 銀兩이 …… 만일 客商의 것이라면, 처자식을 버리고 풍찬노숙하면서 고생스럽게 번 돈일 텐데 지금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을 태울까. …… 만일 소형 자산가라면 고작해야 이 밑천이 전부일 것이다. 아마도 나처럼 비단을 팔거나 실을 잣아 고생하여 벌었을 것으로, 이 銀은 생명유지의 근간이다. 만일 잃어버려 목구멍의 기운이 끊어진 것 것과 같다면, 가족 모두가 선량해도 정말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서로 원망하여 틀림없이 몸을 팔고 자식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이다. 만일 성미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면 화를 못 견뎌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sup>14)</sup>

영세 수공업자에게 있어 밑천은 생계유지의 근간이다. 때문에 밑천을 잃게 되면 생활고에 직면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施潤澤은 적은 밑천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신의 생활체험에 근거하여 영세한 객상의 어려움과 처지를 미루어 생각하면서 측은지심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나는 습득한 것이라 그다지 죄될 것은 없지만, 항상 마음에 걸려 쓰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다”<sup>15)</sup> 라고 생각하여,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한다.

“그 곳으로 돌아가서 돈을 잃은 사람이 찾으러 오길 기다려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한 길이다.”<sup>16)</sup>

14) “這銀兩……若是客商的, 他拋妻棄子, 宿水餐風, 辛勤掙來之物, 今失落了, 好不煩惱. ……儻然是個小經紀, 只有這些本錢, 或是與我一般樣苦掙過日, 或賣了綢, 或脫了絲, 這兩錠銀乃是養命之根, 不爭失了, 就如絕了咽喉之氣, 一家良善, 沒甚過活, 必致鬻身賣子. 儻是個執性的, 氣惱不過, 飢餓送了性命, 也未可知.”

15) “我雖是拾得的, 不十分罪過, 但日常動念, 使得也不安穩.”

16) “不如原往那所在, 等失主來尋, 還了他去, 到得安樂.”

이처럼 施潤澤은 재물과 도덕 중에서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은 후 마침내 도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러한 심리변화과정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 작자는 그의 선행은 완전히 자신의 내적인 도덕적 자각에서 비롯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의 선행이 금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던 명 중후기 도시사회의 풍조 아래 출현했기에 더욱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측은지심에 기초한 선행을 실천한 결과, 施潤澤은 이후로 운이 호전되어 해마다 양잠수확이 풍작을 이루어 부자가 되었으며, 게다가 아들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었다.

이상의 施潤澤 외에, 도덕적 자각에서 비롯된 선행을 실천한 인물로 《二刻拍案驚奇》第二十四卷 《庵內看惡鬼善神 井中譚前因後果》의 元自實도 주목할 만하다. 元自實은 원래 부유한 농민출신으로, 이웃 친구 繆千戶는 타지로 부임해갈 때 여비가 모자라 그에게 돈을 빌린다. 이처럼 元自實은 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줄 만큼 넉넉했다. 그러나 이후 元自實은 뜻밖의 전란으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점차 곤궁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繆千戶를 찾아가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으나 繆千戶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不義한 행동은 연말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한층 부각된다. 연말이 다가오자 元自實은 재차 그를 찾아가 빚 독촉을 한다. 이에 繆千戶는 마지못해 돈과 식량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지만 그는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元自實과 그의 가족들은 선달그믐날 저녁에 밥 한끼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새해를 맞이해야 했다. 元自實은 이러한 繆千戶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매우 분개했다. 급기야 元自實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칼을 품에 품고서 繆千戶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繆千戶의 집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아래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노모와 처자식이 있으며, (우리 가족은) 평소 그 집 사람들과 자주 왕래한다. 그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만일 繆千戶 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의 노모와 처자식은 타향을 떠

돌아다니며 걸식하게 될 것이다.”<sup>17)</sup>

元自實은 비록 繆千戶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하더라도 그의 노모와 처 자식은 아무 죄가 없으니 그를 죽여 그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피난생활에 근거하여 繆千戶가 족들의 처지를 헤아려보았다.

“우리 가족들이 떠돌아다니는 고통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진데, 어찌 그 집 가족들까지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겠는가!”<sup>18)</sup>

元自實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가 나를 배반할지언정, 나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sup>19)</sup>라고 결심했다. 이처럼 元自實은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들끓는 복수심을 달랬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는 쉽게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즉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元自實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악행을 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착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덕분에 분노로 인해 생긴 악한 마음 즉 살인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훌륭한 점은 바로 측은지심을 발동시켜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제어했다는 데 있다. 이후 元自實은 이러한 자각적 선행 덕택에 芙蓉真人을 만나 계시를 얻어 재난을 모면하게 되고, 또 우연히 재물을 얻게 되어 부자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의 풍족하고 행복한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施潤澤과 元自實의 선행은 나를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요되어진 도덕규범을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두 도덕주체의 자각적인 선행이 갖는 시대적 의의이다. 施潤澤은 영세 수공

17) “他固然得罪于我，他尚有老母妻子，平日與他通家來往的。他們須無罪，不爭殺了千戶一人，他家老母妻子就要流落他鄉了。”

18) “思量自家一門流落之苦，如此難堪，怎忍叫他家也到這地位!”

19) “寧可他負了我，我不可做害人的事。”

업자였고, 元自實은 평범한 농민이었다. 이들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결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방면에서 그들은 지식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三言》·《二拍》은 교육수준 혹은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전의 서민계층을 도덕실천의 주인공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사회의 평등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三言》과 《二拍》의 작자는 서민이 자발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이야기를 훌륭하게 예술적으로 형상화시켰고, 이러한 평등의식을 띤 소설이 상층 및 하층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두루 읽혔다는 사실은 확실히 중국봉건사회의 중대한 변화라 볼 수 있다.

#### IV. 善行觀의 한계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三言》·《二拍》은 도덕주체의 자각에 기초한 선행을 제시했으며, 이는 “良知는 시비의 마음이다”<sup>20)</sup>라고 하여 도덕적 시비판단을 개인의 良知로 귀속시킴으로써 도덕행위의 주체성을 강조한 陽明心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이로 인해 《三言》·《二拍》의 선행관의 함의에는 주체성과 능동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三言》·《二拍》의 편찬자는 이처럼 새로운 함의를 지닌 선행관을 제시하여 대중들에게 선행을 적극 독려했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이 혼란과 위기에 직면한 국가를 재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도덕주체의 완성과 공동체 사회의 발전은 별개의 문제이다. 때문에 국가의 부흥을 목표로 도덕주체의 자발적 선행을 주창한 《三言》·《二拍》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三言》·《二拍》의 선행관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도덕주체의 내적 도덕수양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 새로운 질서규범을 정립하여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는 문제를 소홀히 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明末시기 개

20) “良知只是個是非之心”, (明)王陽明 著, 《傳習錄》中.

개의 도덕주체의 주체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공의 옳을 향해 나아가는 응집된 행동이 출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陽明心學의 ‘天理는 내 마음의 良知’라는 체계 속에서 적당한 변호를 받아 도덕주체의 주관성이 더욱 확대되고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각각의 도덕주체는 자신의 주관적 잣대로 다수 도덕주체의 행동을 평가하고, 게다가 타인의 주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그 좋은 예로 義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한 개인이 타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징벌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義俠’이라 불리는 협객영웅 인물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警世通言》第二十一卷 《趙太祖千里送京娘》의 趙公子와 《喻世明言》第十五卷 《史弘肇龍虎君臣會》의 史弘肇와 郭威, 《喻世明言》第二十一卷 《臨安里錢婆留發跡》의 錢鏐, 《拍案驚奇》第四卷 《程元玉店肆代償錢 十一娘雲岡縱譚俠》의 韋十一娘, 《二刻拍案驚奇》第三十九卷 《神偷寄興一枝梅 俠盜慣行三昧戲》의 懶龍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협객영웅의 특징은 모두 義를 숭상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숭상하는 義는 私적인 물질적 이익을 가리키는 利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私心이 없는 공평무사한 도덕적 가치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경멸하고 적대시 한다. 때문에 작품 속에서 이들은 공평무사한 하늘의 道가 세상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선량한 민중들을 괴롭히는 세력에 대항한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침범한다. 즉 그들은 무죄한이나 악당들처럼 살상과 도적질을 일삼으며, 그 수단은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警世通言》第二十一卷 《趙太祖千里送京娘》의 趙公子를 구체적 예로 들어 진술해보기로 한다. 趙公子는 강도에게 잡혀 太原지방의 清油觀에 감금되어 있던 京娘을 고향 蒲州로 데려다 주는 도중 汾州 지방을 거쳐 간다. 그들은 어느 객점에 묵게 되는데, 이때 趙公子는 객점 주인장 부부가 그 지방 강도들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철 방망이로 때려죽인다. 당초 周進과 張廣兒 두 명의 강도는 이 지방에서 백성들을 강탈하

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이들은 객점주인장 부부에게 분부하길, 미모의 여성을 발견해 즉시 보고하면 후한 상금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 강도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납치하여 첩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객점주인 부부는 후한 상금에 욕심이 나서 京娘을 보자마자 즉시 그들에게 보고했다. 趙公子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처벌이 타당했다고 자부한다.

그는 말하길, “우리 호한들은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sup>21)</sup>

이처럼 趙公子는 자신이 선행이라고 여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며, 사람들의 비판적 여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도덕주체인 趙公子가 과연 다른 도덕주체를 처벌하고 징벌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 고사를 통해 보면, 당시 대중들은 이러한 그의 행동에 아무런 반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지를 보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점주인 부부의 행동은 확실히 부도덕한 면이 있다. 하지만 趙公子가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벌하기 위해 때려죽였던 행동은 결코 객관성을 담보하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조직의 소탕은 사회가 공인한 객관형식(예를 들면 법률이나 제도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한 개인이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趙公子는 자신이 도덕의 심판자라고 여기고 자신은 악한 사람을 징벌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사실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聖賢의 정치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聖賢의 언행은 언제나 道에 위배됨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趙公子는 결코 성현이 아닌, 인간적 결함을 지닌 보통사람에 불과하다.

趙公子가 객관화 되지 못한 도덕주체라는 면은, 그가 한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趙公子가 객점에 묵고 있을 때

21) “俺們做好漢的, 只要自己血心上打得過, 人言都不計較.”

한 노인이 나타나 객점주인이 강도들과 내통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철저히 경계하라고 당부한다. 이에 趙公子는 그를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그는 나를 貴人이라 부르고, 또 나를 보면 감히 정좌하지도 못하니 나는 분명 보통사람이 아닌 것이다. (내가) 후일 만일 출세하면 마땅히 (그에게) 封號를 내리겠다.”<sup>22)</sup>

이처럼 趙公子는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판단한다. 그는 노인이 자신을 도우고 존중하기 때문에 착한사람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는 자기 자신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며 반대로 자신을 해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훗날 그에게 후한 상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는 도덕주체의 주관성이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나타난 병폐로, 당시 義를 숭상했던 협객들이 지닌 공통된 한계점이다. 주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각의 도덕주체는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했다.

도덕주체의 주관성이 몰고 온 폐단은 이상의 협객 이외에 평범한 서민 형상에서도 보이고 있다. 객관화 되지 않은 도덕주체가 빚어내는 불합리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로 《警世通言》第五卷 《呂大郎還金完骨肉》은 주목할 만하다. 이 고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呂大郎의 행동을 통해 도덕주체의 주관성의 확대로 인해 나타난 병폐를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無錫縣에 살던 呂大郎은 6살 된 어린 아들을 잃은 후 상심에 젖어 있다가, 아들을 찾기 위해 행상 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로 그는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다. 사실, 山西 지방에 배(布)를 팔러 갔던 呂大郎은 기루에 출입하여 성병에 걸렸다. 이후 3년 동안이나 거기서 고생스럽게 치료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아내에게 소식 한장 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한 여인의 남편으로써 呂大郎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했음을 알 수 있

22) “他呼我爲貴人，又見我不敢正坐，我必非常人也，他日儻然發迹，當加封號”

다. 그러나 작자는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한 비난은 접어두고, 그의 선행에만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운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는 등의 선행을 위주로 그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부각시킨다. 작자는 그를 선행 실천자로 형상화하고 있으나, 사실 그의 선행에는 “種福田 복을 받을 씨앗을 뿌리다”라는 공리적 성향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전,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다.

呂大郎은 생각하길,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칠층 불탑을 짓는 것보다 낫다. 승려들에게 시주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어찌 銀 스무 냥을 보상으로 내주는 걸 아까워하겠는가? 사람을 시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지금의 功德이다.”<sup>23)</sup>

이처럼 呂大郎은 福을 구하는 마음에서 선행을 행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그의 선행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리성이 짙은 선행은 그의 인격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은 도덕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며, 자신은 비도덕적 행동을 한 인간을 비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지닌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도덕적 결함만 지적해낸다. 이것은 동생 呂寶가 자신이 山西 지방에 머무는 동안 형수를 재가시키려 했던 행동에 대한 냉혹한 비난을 통해 알 수 있다.

동생 呂寶는 항상 나갔던 형 呂大郎이 山西 지방에서 객사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사실로 여기고 형수를 재가시키려 했다. 그가 형수를 재가시키려 했던 이유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23) “呂大郎就想: “救人一命, 勝造七級浮屠. 比如我要去齋僧, 何不捨這二十兩銀子做賞錢, 教他撈救, 見在功德.”

“그는 생각하길, 형은 이미 죽었고, 형수는 내놓는 바가 없다. 게다가 나이도 젊으니 그녀를 권유해 재가시키면 나는 재물을 얻을 수 있다.”<sup>24)</sup>

呂寶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부가 된 형수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왜냐하면 형수는 재부를 창출하여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呂寶는 원래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하지 못했으며, 공교롭게도 이때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으로 더욱 곤궁해졌다. 그는 도박판에서 큰돈을 잃어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집안의 값이 나가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던 터에 형수의 재가 문제까지 생각이 닿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江西 상인에게 형수를 재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은 呂寶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江西 상인 측에서 온 사람들이 呂寶의 아내를 형수로 오인하고 데려갔던 것이다. 마침 이때 죽었다는 형 呂大郎이 아들과 상봉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이에 呂寶는 형을 빌 면목이 없어 몰래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呂大郎은 동생이 저지른 사건을 알고는 자업자득이라 여겼다.

“도리를 거스른 동생이 아내를 팔게 된 사건은 자업자득이다. 하느님(이 선악행위에 따라 내리는 길흉화복)의 應報는 정말로 한 치의 오차도 없구나!”<sup>25)</sup>

이렇게 생각한 呂大郎은 이후 동생의 행방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당연히 呂寶의 부도덕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한 행위 이면에 숨겨진 그의 딱한 처지를 감안한다면 형으로서 다소 동정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동생은 경제력이 없는 형수를 부양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은 또한 형 呂大郎의 집안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

24) “呂寶心懷不善，想着哥哥已故，嫂嫂又無所出，況且年輕後生，要勸他改嫁，自己得些財禮。”

25) “逆弟賣妻，也是自作自受，皇天報應，的然不爽!”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呂大郎은 동생이 집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데도 냉정히 모른 채한다.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시켜 생각해보지 못한 결과, 자신에게는 관용적이고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현상이 출현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이 고사에 보이는 작자의 서술 태도이다. 작자의 서술 태도는 동생 呂寶를 묘사할 때 선명하게 나타난다. 작자는 “呂寶는 마음이 선량하지 않았다.”라는 직접적 평가를 삽입함으로써 그를 매우 부정적 인물로 묘사한다. 이 평가를 통해 우리는 작자가 인물의 행동을 선과 악이라는 단일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평가했을 뿐, 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呂大郎이 동생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거의 동일하다. 사실 작자는 사건의 발생 배경 및 경위에도 주의를 기울여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어 그것을 기초로 기존의 윤리도덕관념을 수정하여 새로운 문화적 함의를 갖춘 도덕질서를 제시해야 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도덕주체의 자각적인 선행을 부르짖는 외침이 개개의 도덕주체가 객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주관성의 확대를 낳아 결국 수많은 도덕주체가 각기 병립하게 되었다. 객관화 과정을 밟지 못한 도덕주체간의 병립은 오히려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三言》·《二拍》은 도덕주체의 자각을 통한 선행을 강조했다. 윤리의 내재화에서 비롯된 자각적 선행은 비자각적 선행의 결함을 대폭 보완했다. 이러한 선행관의 출현으로 일반대중은 선행의 주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즉 다수의 대중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력으로 급부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평민계층의 성장을 알리는 지표이며, 중국이 이미 근대사회로 이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선행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사회를 재건하는 데 주안점을 둔 ‘선행권장’이라는 《三言》·《二拍》의 편찬취지는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개인의 도덕수양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로의 이행기라는 대전환점에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덕주체를 현실세계로 편입시켜 새로운 문화질서를 건설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三言》과 《二拍》의 선행관을 통해 볼 때, 당시 사람들은 각 개인이 선하기만 하면 무질서한 사회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陽明心學의 흥기로 도덕시비판단이 良知의 작용으로 옳아온 결과, 현실세계에서는 도덕주체의 주관성이 강조되어 폐단이 속출했다. 도덕주체가 개별 주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타 도덕주체의 주체성을 존중하지 않고 주관적 잣대를 견지한 결과 주관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는 오히려 明末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明末, 즉 중국 역사상 도덕주체의 자각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문화가 저급한 만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불운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 < 參考文獻 >

- (明)馮夢龍, 《喻世明言》(臺北: 鼎文書局), 1980. (衍慶堂本影印)
- (明)馮夢龍, 《警世通言》(臺北: 三民書局), 1992. (金陵兼善堂本影印)
- (明)馮夢龍, 《醒世恒言》(臺北: 三民書局), 1995. (金閨 葉敬池本影印)
- (明)凌夢初, 《拍案驚奇》(臺北: 三民書局), 1979. (尚友堂本影印)
- (明)凌濛初, 《二刻拍案驚奇》(臺北: 三民書局), 1993. (尚友堂本影印)

- (明)王陽明 著, 張懷承 註譯, 《傳習錄》(長沙: 岳麓書社), 2004.
- 石昌渝, 《中國小說源流論》(北京: 三聯書店), 1994.
- 勞思光, 《新編中國哲學史》三(下)(臺北: 三民書局), 1981.
- 樂蘅軍, 《意志與命運: 中國古典小說世界觀綜論》(臺北: 大安出版社), 1992.
- 謝和耐 著, 耿升 譯, 《中國與基督教教》(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何兆武, 《中西文化交流史論》(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01.
- 陳祖武, 〈從清初的批判理學思潮看乾嘉學派的形成〉, 《清初學術思辨彙》(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 <中文提要>

16世纪至18世纪, 就世界历史而言, 不管是西欧国家还是中国, 都经历着一个转折的关头, 即从封建社会转入近代社会。此时, 西欧比世界任何其它国家都快速地进入了近代社会。相形之下, 中国虽然出现了近代性萌芽, 但其萌芽在还没正式萌发之前就被淹没, 结果造成了封建社会发展的停滞局面。关于中国封建社会发展停滞的原因, 借此文从思想意识方面切入找出解答。

明末正处于从封建社会转入近代社会的转折关头, 在思想意识方面也萌发了发自内心的自觉行善的意识。这一点在当时的通俗文学作品之一《三言》《二拍》中能够得到很好例证。以自主为核心内容的善意识在一定程度上可以消除外在天理的强迫性而有助于培养主体的道德自觉能力, 以致完善道德自我。但由于各个道德主体没有升入一共同主体性, 难以达到规范各个道德主体以使社会步入良性秩序的地步。于是, 在拯救国家危机方面, 发自道德主体内心的自觉善行显露出其严重的局限性。

주제어: 明末, 《三言》, 《二拍》, 道德主体, 善行, 自覺, 主觀性